"광양시 조직개편 기술직 챙겨라"

인구 15만명 시대, 조직 진단 용역
50명 이상 충원…인사 소외 없애야

광양시가 지난해 인구 15만명 시대를 열면서 시 행정 기구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의 행정서비스와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직에 대한 여론수렴을 철저히 해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절실하다.

1995년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해 출범할 당시 12만9000여 명이었던 인구가 16년 만인 지난해 11월 인구 15만명을 달성하며 도·농도시로서 위상을 다지게 됐다.

이에따라 광양시는 인구에 걸맞게 현 행정조직을 재진단한 뒤 미래 행정환경과 최상의 행정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억3000만원을 들여 조직진단 용역 추진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겼다.

광양시는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조직 설계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의 모델과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정 기구개편 용역은 이달부터 4월까지 모든 실과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6월 새로운 행정기구와 정원조정에 관한 최종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중 개편안을 마련해 하반기 인사에 반영될 이번 조직 개편안은 1국, 2~3과소가 증설되며 50~100여 명의 인력이 충원될 전망이다.

이처럼 거대 조직과 인원충원이 예상되지만 200명 이상 되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또다시 행정직들에게 밀려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자리를 제대로 '꿰차지' 못할까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3선의 이성웅 시장 인사스타일을 지켜본 기술직들은 행정직들에 비해 설움을 받아왔다는 소외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청내 한 간부는 "실제로 궂은 일은 기술직들이 묵묵히 많이 하는 게 현실이지만 늘 인사때 마다 기술직은 고위직 자리가 없어 서기관은 꿈도 못 꿔본 게 현실이었다"면서 "이제 인구 15만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이 개편안에 따라 설치되면 기술직들도 4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양시의 행정조직 개편은 최상의 행정서비스와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분석과 이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철저히 해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절실해 보인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900여 명의 공무원중 4국(총무국·도시항만국·의회사무국·산단추진단)이 4급 서기관이고, 나머지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국장급 대우), 4 담당관 등도 모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완도타워 작년 관광객 13만명 찾아

지난 2008년 9월에 세워진 '완도타워'(높이 76m)가 전국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타워'를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1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야간에 불빛으로 가득 찬 완도항을 향해 완도타워에서 레이저 쇼를 펼치면 신지대교 경관조명 및 '노래하는 등대'의 불빛과 더불어 마치 공연장에 온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완도읍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서모씨는 "완도타워에서 완도항을 관람하기 위한 많은 관광객들이 숙소를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군 김태식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완도타워에 대해 문의하는 자치단체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완도의 랜드마크라는 위상에 걸맞게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최근 무안교육지원청 주최로 초당대 국제어학원에서 열린 '중국문화 체험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중국어를 익히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무안교육청 중국문화 체험캠프

중국어 교육 성적 우수 초·중학생 49명 대상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원)은 최근 6일간 초당대학교 국제어학원(원장 임진호)에서 중국문화 체험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체험캠프에는 지난 1년 동안 '방과 후 학교' 중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 성과가 우수한 학생들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학생 49명이 참가했다.

이번 체험캠프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오전에는 기본적인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중국의 서예·음악·체육(태극권)·민속놀이·음식 등 6개 테마별로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이번 캠프 수료식에서는 박다희(무안중 2)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정수진(청계 초 5)·김유민(삼향초 6)·임서윤(삼향북초 4)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중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는 8월 예정인 중국현지 체험캠프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박석원 교육장은 "이번 체험캠프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무안지역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중국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새얼굴

"고객만족 서비스 업무 적극 전개"

구운서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농업 기반시설을 보강·확충해 농·어촌 구조개선 등 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구운서(55)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은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40억원,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70억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10억원 등 총 2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업무를 경영선진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장 고객만족 서비스 업무를 적극 전개해 지역민이 최우선이 되는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출신인 구 지사장은 광주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7년 공사에 입사한 후 진도지사, 광주지사 농지은행팀장 등을 지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윤성호 무안군수 권한대행

"한·중 미래도시 차질없이 추진"

"새해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추진된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성호 무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책임행정, 열린 행정, 감동행정을 올해 군정 기조로 삼아 군민들이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책을 개발하는 등 군민이 공감하는 생활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중 미래도시 건설사업' 등 '3대 미래 성장동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 장기발전 기반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한·중 미래도시 건설사업'은 항공특화단지 중심의 기업도시개발 변경계획을 이달 중에 승인받고, 금융권 자금조달에 따른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 특화기업 유치를 통한 배후단지 조성과 여수엑스포 기간중 국내외 항공수요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 권한대행은 "'남악 신도시'는 중추적 도시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확대구축으로 전남도 행정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향후 무안 시 승격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성장동력 확충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무안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 무안발전의 새로운 계획표를 제시하고 군정 운용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악 신도시 기반 확대
농업 새 소득작목 개발
품바 체험형 상품 육성

한·미 FTA 발효이후 농·수·축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비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에 의한 친환경 농업단지 및 식품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파 등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과 무안마늘의 향토산업 육성 및 농산물가공센터 가동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또 어촌 종합 개발사업과 정주어항 개발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수산물 유통가공기반 조성과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안정적 어업생산을 도모한다.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동물복지형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철저한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구상이다. 윤 권한대행은 "사계절 생태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체육·예술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산 백련지를 청정생태관광 명소로 적극 개발하고, 국가지정 창조산업의 하나인 '일로 품바'를 세계적인 체험형 문화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생태갯벌 센터는 사계절 채집관찰이 가능한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영산강 전통 뱃길을 살려 관광소득 창출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예술체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는 한편 '스포츠 파크' 주변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친다.

이밖에도 살기좋고 쾌적한 녹색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윤 권한대행은 "군민의 건강을 담보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확대 추진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한 마을내 기초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의회 몫 여수시인사위원 추천
시의회 의장 단독 처리 '말썽'

여수시의회 의장이 여수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단독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수시장이 청렴한 '클린 도시 실현' 일환으로 인사위원회의 내부 인사를 축소하고 외부인사 위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중 의회 몫으로 규정된 위원 1명을 추천받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 17일자로 공문을 통해 '의회 추천'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 곧바로 초등학교 퇴직 교장 출신 A씨를 의회 협의없이 의장 직권으로 추천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시(7~9명까지) 지방의회 추천 인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을 비롯해 내부 직원 3명(임기만료 1명 퇴임)과 외부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인사는 시장 추천 2명, 의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가 각각 1명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의원들은 금시초문이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가하면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심은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규 시의장은 "지금까지 의회가 위원회 인사를 추천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처리해 왔다"며 "오해소지가 있으나 관행이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